

강운태 민주 광주시장 후보 확정 의미와 전망

시민·당원의 승리... 후유증 극복 과제

지방선거 승리 발판 마련속 검찰 수사 등 여지 남아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3일 6·2 지방선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사실상 최종 확정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논란이 끝났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의 후보 인준이 남아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요식적 절차에 불과해 강 후보는 관선 광주시장에 이어 민선시장까지 도전하는 기회를 잡게 됐다.

◇의미=강 의원의 후보 확정은 민주당원과 광주시민이 만든 합작품으로 평가된다. 당 주류 측에서 '개혁 공

전' 명분을 내세워 시민배심원제를 도입, 강 의원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듯 했지만, 시민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불법 ARS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심이 신청돼 20여일 동안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많은 시민이 강 후보를 지지, 재심위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각각 결정을 하도록 압박했다.

강 의원의 후보 확정으로 민주당은 광주 경선 잡음을 털고 호남을 넘어 수도권 선거에 대비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이용섭·정동채 후보가 늦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이 다시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이날 공개된 재심위의 기각 결정과 이에 대한 최고위의 수용 의결은 더 이상 광주 경선 잡음을 계속될 경우 수도권 선거에 치명적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당직자들은 이번 상황을 부시

와 고어가 맞붙은 지난 2000년 미국 대선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재검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어 후보는 모든 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면 개표 시한 연장을 요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개표를 중단시키고 부시 후보가 승리했다고 판결했다. 고어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고, 35일간에 걸친 개표 혼란은 막을 내렸다.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고어의 승복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즉, 더 이상의 혼란을 경계한 미국 법원의 판단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비슷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유선호 재심위원장은 이날 "재심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심 기각으로 이용섭·정동채 후보는 당장 기회를 잃었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 의원은 '조선'일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저력을 발휘했으며 정동채 예비후보는 조직 면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선전함으로써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과제 및 전망=강 후보는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 후보로서 호남에서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후보들을 규합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어느 선거보다 잡음이 많은 공천과정 때문에 무소속 바람이 거세졌지만 전남지사 후보인 박준영 지사와 손을 잡고 민주당 바람몰이를 시도할 경우 무소속 후보들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벗어난 민주당원 또는 시민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승자로서의 아량과 포용심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저력을 발휘했으며 정동채 예비후보는 조직 면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선전함으로써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재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박주선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재보선 강운태 '대타' 누구?

7일 국회의원 사퇴

출마 후보자 촉각

강운태 후보가 오는 7일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의 광주시장 후보 인준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7월 28일 치러지는 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무엇보다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지도부의 입김이 크게 강화되면서 남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 패배하거나 절반의 승리에 그칠 경우 지도부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주류와 비주류 등 계파 간의 팽팽한 세 대결 양상이 펼쳐지면서 남구 보궐선거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구의 맹주인 강운태 후보의 의중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강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 남구 국회의원 보선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에 있었던 양형일, 정동채 전 의원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장병만 후보대총장, 지방분권 전 의원 등도 출마 가능 인물들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퇴임하는 박광대 광주시장의 경우 공직후보자 사퇴시한(선거 전 120일)이 걸림돌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남구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 지도부와 강운태 후보의 의견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시민 변함 없는 지지에 감사”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강운태 후보는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광주시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장 경선 승리도 극적이었지만 후보 확정 과정도 많은 우려곡절을 거쳤다.

▲광주시민이 나를 지켜주신 결과다. 위대한 광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합리적 판단을 내린 민주당 지도부에도 감사드립니다.

-재심 과정에서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회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지지해 준 광주시민을 믿고 견뎌왔다. 사실 광주시장에 도전한 것도 광주시민의 성원과 지지가 가장 큰 배경이었다.

-재심 결정이 수용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민주당 재심위와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낙관했다. 경우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광주시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전후해 타 후보들과 많은 갈등도 있었네.

▲경선에서 석패하고 재심 과정에서 고통이 많았던 이용섭, 정동채 두 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두 분 모두 평소 애가게는 그 누구보다 능력있는 후보다.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가 제시했던 정책 공약들도 적극 승계해 나가자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갈등 극복 방안이 있다면.

▲지난 4월10일 경선 당일 제의한 대로 이용섭, 정동채, 양형일, 전갑길 네 분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광주시민도 민주당에 힘을 모아줄 것이다.

광주·전남 무소속 5~6명 1위 고수

초반 판세...최대 10여명까지 당선 전망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 대 무소속' 구도가 가시화되면서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거세게 일었던 무소속 바람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 초반 판세는, 5~6명의 무소속 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선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황일봉 남구청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용 광양시장, 황주홍 강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 청 장성군수 등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임시절 다져놓은 탄탄한

조직력과 인지도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을 누르고 1위를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 후보들이 쉽게 꺾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주향득 나주시장 예비후보와 허남석 곡성군수 예비후보, 임호경 화순군수 예비후보, 전경태 구례군수 예비후보, 김성호 함평군수에 비후보 등도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도 전직 단체장과 경찰서장, 도의원을 지낸 경험 등을 토대로 지역에서 지지세를 적지 않게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부실 경선에 따른 지역정치권의 반목과 민심 분열 조짐 그리고 '정당 공천제 폐지'를 외치는 전·현직 단체장들의 무소속 연대에 따른 '무소속 돌풍'이 거세게 불 경우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최대 10여 곳에서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의 분석이다.

이럴 경우 지난 2006년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6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점으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뒷받침인 광주·전남에서 무소속 후보들에게 연이어 참패하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광주 성형외과 의사회

▶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광주시에 개설된 성형외과 전문의는 20여명에 불과합니다. 모두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이며 의사면허를 취득 후 7년이상 성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에서 진료할 수만은 아닙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에 가입해버리면 그 때까지 주어집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의 올바른 구별방법

1.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에 관한 학회 회원
2.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3.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4.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5.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6.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최명환 성형외과 ☎ 224-8875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김조원 성형외과 ☎ 225-0119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프렌즈성형외과 ☎ 366-7880, 6884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김남호 성형외과 ☎ 378-4114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김대승 성형외과 ☎ 224-8663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김형익 성형외과 ☎ 225-9777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김영철 성형외과 ☎ 237-3777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메카 성형외과 ☎ 232-36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멜라 성형외과 ☎ 234-73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신세계 성형외과 ☎ 351-1114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오형근 성형외과 ☎ 366-0003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박준근 성형외과 ☎ 238-33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최석현 성형외과 ☎ 224-89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메디컬 성형외과 ☎ 252-5252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코로 성형외과 ☎ 223-75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김구현 변 성형외과 ☎ 383-7185~7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비올리스 성형외과 ☎ 363-0075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홍준수 성형외과 ☎ 234-0808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홍재현 성형외과 ☎ 224-62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시원성형외과의원 ☎ 261-4080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	신지호 성형외과 ☎ 222-0222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29